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2:1상)**

나는 이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섭고 나쁘게만 되어 가는군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은 핑계치 못할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남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2:1하)**

당신은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그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할 때에, 내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저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고 있으면, 나는 이중으로 나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이 나쁜 것을 알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보이는지, 이것은 참으로 놀랄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단지 당신 자신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2:2-3)**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고후 5:10-11)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무슨 면역이 있어서 심판을 무시히 통과하리라 생각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2:4)**

많은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나 오래 용납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즉시 벌을 내리시어 찢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나 큰 인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즉시 없애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노시에 사는 어떤 사람이 온 가족을 살해한 기사를 읽고, 또 그가 법정에서 여러 달 동안 재판 받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오, 하나님, 공의가 속히 시행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만일 그것이 나의 경우라면, ‘오, 하나님, 참아주소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사오니, 언젠가는 제가 바르게 살도록 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오랫동안 용납하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러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정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만일 옳지 않게 보신다면, 복을 벌써 거두어 가셨을 것인데...’ 라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죄짓는 생활을 계속하여도 그들의 생활에 복이 계속 내리므로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시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서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2:5).**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댐으로 막고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당신의 죄와 불의한 일들을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댐이 무너지는 날이 오리니, 그때는 심판이라는 홍수가 일어나 그 동안 당신이 쌓아 두었던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신을 휘몰아 갈 것입니다. 땅 위에 사는 자에게 “화, 화, 화로다” 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를 경고한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이 부어질 세 나팔 재앙이 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최악 된 생활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그의

심판을 참으실 지가 염려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은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은 심판은 오고야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진노의 날을 위해서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2:6-11).**

당신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2:12).**

지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야심이란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고,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2:13-15)**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각 사람의 마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선과 악을 아는 양심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을 기록하셔서, 나의 양심이 나 자신을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것입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2:16-17)**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2:18-23)**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자신이 스스로 배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설명하시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법의 외적인 면만을 지키고, 내적인 법은 여기는 일을 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자는 “살인하지 말라” 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었으나, 당신이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간음죄를 범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당신의 생활 속에 우상이 있느냐? 우상이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그것은 다 우상이다. 어떤 목표나 야심이나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능가할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의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2:24-25)**

이제 할례에 대해서 보면, 그 배후에는 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것을 잘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뜻이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좇아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의 영적 상징입니다. 성령을 좇아 사는 자들은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적인 면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의식을 따라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하나, 영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당신이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하였다 하여도 계속 육신적으로 살면, 당신의 할례가 무의미하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견지에서 물침례란 육신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죽였고, 옛 생활은 끝이 났다는 상징입니다. 물에서 올라 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되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는 상징입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앞으로 뒤로 물에서 세 번씩이나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육신을 좇아 살고 있다면, 침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침례를 마음에 행하여야 가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행하여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령을 좇아 살기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속에 성령을 좇아 사는 소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 **그러나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2:26)**

이제 이러한 진리는 침례에서도 적용됩니다. 사람이 침례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께 살아 있고, 성령을 좇아 살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 비록 침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침례를 꼭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강요하는 사람들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참된 침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며, 그것은 베드로에 의하면,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요 외는 어떤 사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했을 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단 한가지 소원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고, 지속적인 사귀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일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머지 모든 주중의 날은 나의 육신적인 생활과 세상의 욕망과 목적과 야심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2:27-29)**

이제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살므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더러운 마음과 범죄 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일들을 자신들도 행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말하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유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입술로 말은 잘하고, 마음으로 지켜야 할 법을 외적 의식은 잘 행하지만, 마음속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판단은 잘하면서도 그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므로 그것에 유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죄인들입니다. 율법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법으로 법 없는 자들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였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엄연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연에다 이상한 가설을 기초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선언받았습니다.

끔찍하고 어두운 결론을 당신에게 주는 듯하나, 3장과 4장에서 죄 된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울은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려고 그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를 그림으로 묘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림과 같이 묘사하기를 좋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색깔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림의 배경을 먼저 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캔버스 위에다 차게만 보이는 새까만 색깔을 붓으로 찍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처럼 절망적인 배경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은혜를 캔버스 위에 붓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죄 된 세상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과 사귀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삶은 사람에게 성령을 좇아 살게 하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장을 읽어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내용이 담긴 3장과 4장을 미리 읽어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악이 담긴 TV보는 것과 음탕한 잡지를 보는 것을 제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욕신을 따라 사는 함정에 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욕신적인 일을 즐기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며, 그와 사귀며,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고, 더욱 풍성하고, 더욱 충만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